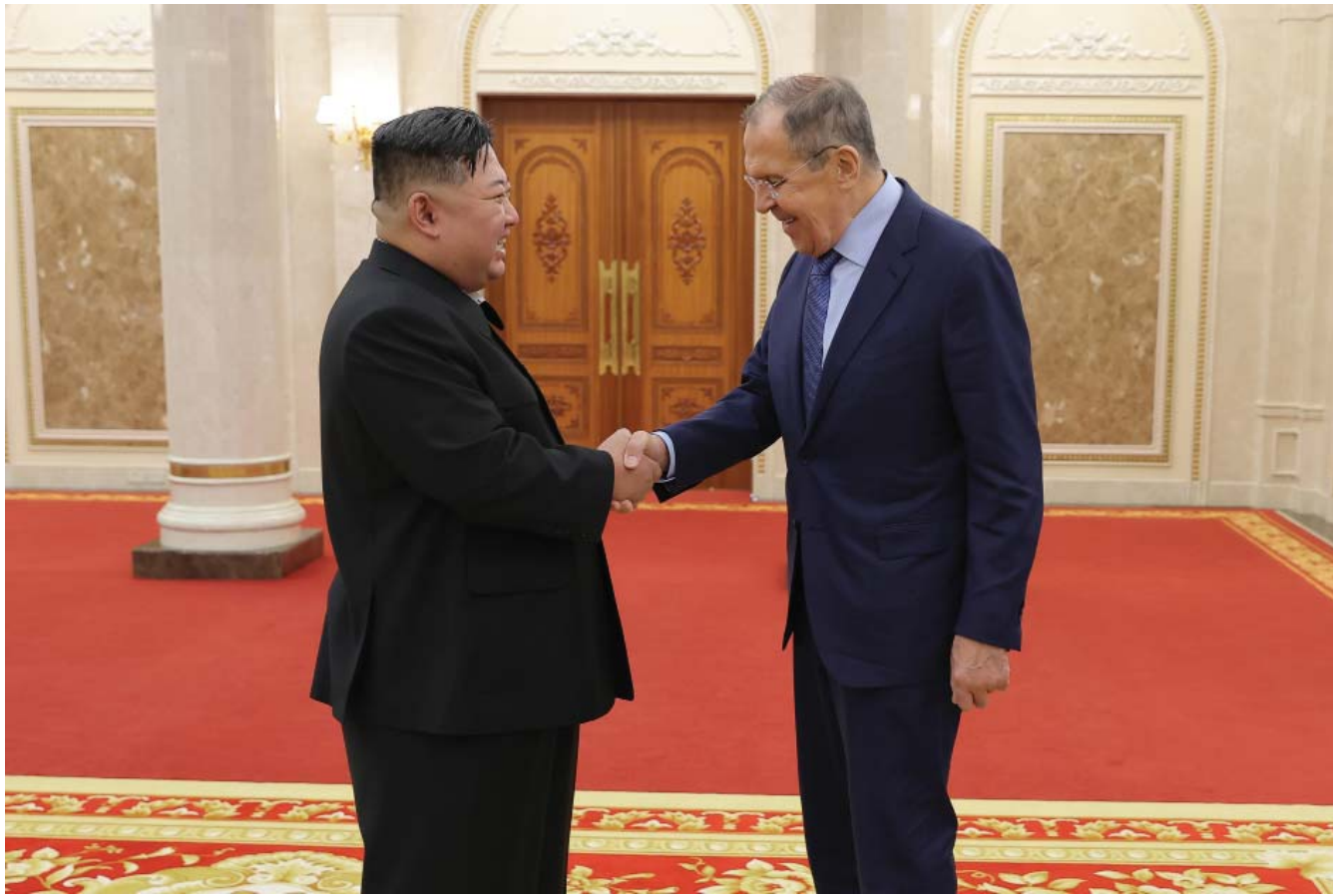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로씨야 연방 외무상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0월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세르게이 라브로브 로씨야 연방 외무상을 접견하시였다.

로씨야 연방 외무성 부상 안드레이 루덴코와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 연방 특명전권대사 알렉산드르 마체고라가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세르게이 라브로브 로씨야 연방 외무상과 반갑게 상봉하시고 외무상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며 동지적우애의 정이 넘치는 담화를 나누시였다.

석상에서 세르게이 라브로브 로씨야 연방 외무상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보내는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쾨펜 로씨야 연방 대통령의 따뜻한 인사를 정중히 전해드리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쾨펜 로씨야 연방 대통령과 형제적인 로씨야인민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과 정부, 인민들의 정깊은 인사를 전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지난 9월 전통적인 조로친선의 력사에 광복할 자욱을 새기며 위스트호츠노이우주발사장에서 이루어진 쾨펜 로씨야 연방 대통령과의 상봉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로수뇌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들을 충실히 실현하여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조로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하고 그 위력으로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강대한 국가건설위업을 강력히 추동해나가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피력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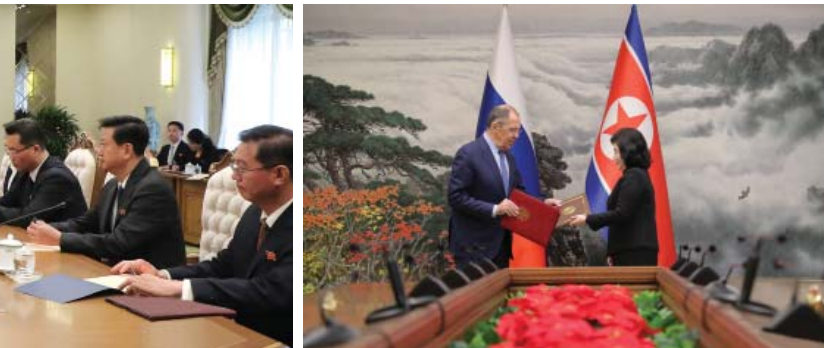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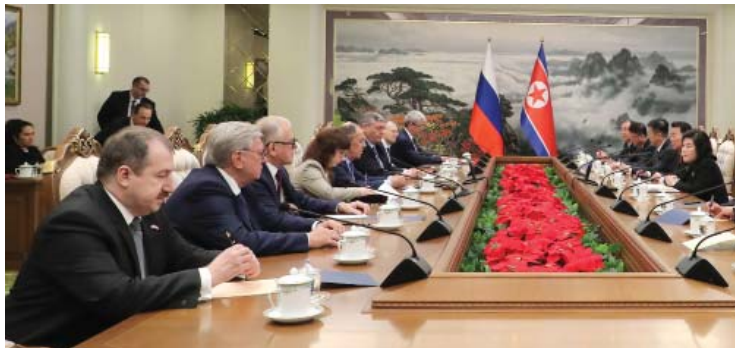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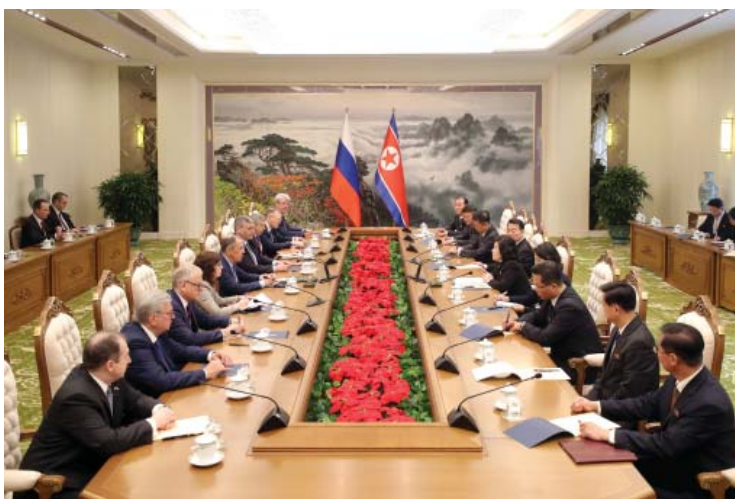
담화에서는 조로 두 나라가 굳건한 정치적 및 전략적신뢰관계에 토대하여

복잡다단한 지역 및 국제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감에 공동의 노력으로 모든 방면에서 쌍무적관계를 계획적으로 확대해나가는것을 비롯하여 호상관심사로 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이 교환되었으며 견해일치를 보았다.

담화는 시종 친선의 정이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과 로씨야 연방 외무상 사이의 회담 진행



최선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브 로씨야 연방 외무상사이의 회담이 19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임천일 외무성 부장과 외무성 성원들이, 로씨야측에서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성 부상을 비롯한 외무상일행과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 연방 특명전권대사 알렉산드르 마체고라가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2023년 9월에 진행된 력사적인 조로수뇌상봉에서 이루어진 합의들에 기초하여 국가간관계를 새시대와 현 정세의 요구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며 경제, 문화, 선진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의 쌍무교류와 협력사업을 정치외교적으로 적극 추동하기 위한 실천적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하였다.

또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정세를 비롯한 여러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서 공동행동을 강화할데 대한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견해일치를 보았다.

회담에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과 로씨야 연방 외무성사이의 2024~2025년 교류계획서가 체결되였다.

본사기자

로씨야 연방 외무상 평양을 출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의 초청에 의하여 우리 나라를 공식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브 로씨야 연방 외무상이 방문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19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최선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과 외무성 성원들,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대사관 성원들이 로씨야 연방 외무상과 일행을 전송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조로 두 나라 국기와 꽃다발을 흔들며 로씨야의 벗들을 따뜻이 배려해주었다.

본사기자



시류음

이역의 아들딸들이 드리는 감사의 노래

- 재일동포학생들의 마음을 담아 -

리들국화

우리의 노래는 조국의 노래

어머니조국이 바다라면서
우리는 그 품에 안겨드는 시내물
걸음걸음 천갈래 만갈래에도
그 품 향한 흐름을 멈출수 없네
천만금이 칼벼랑이 앞을 막아도
용용한 대하되어 통쳐흐르며
소리높이 부르리 바다의 노래

어머니조국의 은혜론 사랑
바다처럼 깊어라 하늘처럼 높아라
먼곳의 자식들 그늘질세라
더 뜨거이 더 가까이 비쳐준
따사로운 운명의 해발을 안아
한없이 후더위지는 가슴들
어머니의 송가로 부풀어오르네

어머니조국이 하늘이라면
우리는 그 품 떠나 못사는 새들
이역의 비바람이 사납다 해도
우리의 나래를 꺾을수 없네
밝은 태양 향하여 것을 쳐 날며
온 세상 다 들도록 목청껏 부르리라
태양이 빛나는 하늘의 노래

이 세상 수만가지 노래 많아도
우리의 노래는 조국의 노래
가슴터쳐 심장으로 높이 부르네
참다운 애국의 삶 안기어주신
우리 운명의 위대한 어머니시여
받으시라 민족교육화원속에서
끝없이 울리는 열렬한 조국찬가를

소중한 시간

초롱초롱 머무랄 고운 눈빛들아
수업종소리는 울렸다
선생님 교실에 들어섰는데
어디 보자 빈자리는 없느냐
아직 헛는 팔며 장난하는 예는 없느냐

세월이 가져다주는 시간이 아니다
조국이 우리에게 준 사랑의 시간
45분, 이 시간을 위해
어머니조국은 얼마나 많고많은
고심과 심혈의 시간을 마음써왔느냐

45분!
참으로 귀중한 배움의 시간이란
덧없이 흘러보내기에 너무나 귀중한
너도나도 우리모두 잘 알고있지
않느냐

바다 멀리 이역에 우리 살아도
꿈과 미래 꽃피워주는 그 사랑 있어
희망과 포부의 노래 활짝 펴는 시간
이역의 하늘아래 찬바람은 세차도
몸과 마음 역세계 튼튼해지는 시간

조국에서 보내준 교육원조비
그 천금으로 마련된 천금같은 시간임을

예들아, 헛되어 말자 소중한 여기자
호르는 분분초초 부디 아끼자

우리에게 조국이 없었더라면
바로 이 시간 우리들의 운명은
파연 어떤 불행의 자리에 있을것인가
자본주의땅에 흐르는 시간간지간이
우리에게 정녕 행복과 기쁨 줄것인가

사랑의 시간에 보답의 시간
우리 있지 못하면 어이 말하라
금지높은 부름 조국의 아들딸들이라고
어머니조국이 지켜본단다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조국을 떠받드는 기둥으로 어서
자라자

45분, 이 시간이 합치고 합쳐져
곳곳이 이어갈 애국의 대로 이어진
단다

넷을 지키리

이역의 눈바람은 차갑습니다
허나 정이 꼭 배인 치마저고리
우린 단 한번도 벗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중한 그 무엇 잃은것같아
조선사람 그 본태를 잊은것같아

단지 정이 든 옷이어서입니까
조상대로 입은 민족옷이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치마저고리는
벗겨도 빼앗겨진 안될
죽어도 못버릴 조선사람 넋이었으니

찬바람 세차게 불면 불수록
기발처럼 나뭇기는 저고리웃고름
이는 당당한 우리 존엄의 상징
저고리 흰빛은 이역땅에 살아도
남의 물에 들지 않은 순백한 우리 마음

사치와 호화를 추구하는 땅에서
류행을 따르는 것이라 하였지만
우리는 그 추세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일본땅 한복판에서도 조선사람임을
땀없이 자부하는 치마저고리 제일일
니다

악착하고 지독한 칼부림에
모질게도 찢겨져나간 치마저고리
그런적이 해어보면 열백번입니까
하다면 그 열백번 어서 보란듯이
우리는 치마저고리 다시 입고 나섰습
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래일도
변함없을 우리 자랑 조선치마저고리
이어가는 애국의 그 한길에서
한생도록 입을 치마저고리
영원히 지켜갈 민족의 넋이여라

나의 길

세월은 류수라더니
어느덧 정든 대학과 작별해야 할
졸업의 시각은 다가왔구나
가슴 뛰는 흥분을 안고
꽃보라속에 교문으로 들어서던
입학의 그날이 어제만 같은데

원수님 사랑어린 장학금 받아안고
오열을 터치던 교실의 창가는
바라보니 오늘도 그날처럼 눈부시구나
조국에서 보내온 민족악기로
울려가던 봄노래 꽃노래
아직도 이 가슴에 봄처럼 따스하구나

머지않아 떠나야 할 교정에서
생각도 깊고 추억도 많아라
내 걸어온 성장의 그 길에는
얼마나 눈물겨운 사랑 숨배어있고
잊지 못할 수많은 사연 어려있던가

수령님과 장군님 세우시시고
장중보옥처럼 귀중히 여기시던 대학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최고전당
세상에 들도 없는 해외교포대학이라고
그리도 각별한 인정 베풀어주시던

아, 원수님 언덕 내 어찌 잊으랴
그 사랑 그 은정에 떠받들려
내 걸어온 길은
이역의 찬바람 세차도 해빛넘친 길
웃음없이 찍어온 자욱 그 길에 있던가
태어나 오늘까지 멀어져본적 없는
기쁨과 행복은 나의 길동무

인생에 선택의 길은 많고많은데
내 어이 판길을 넘볼수 있으랴
총련애국위업의 미래 떠메고나갈
민족인제 튼튼히 키워가리라
그 길에 후회없을 한생의 자욱 찍으
려니
어머니 배부신 그 사랑 품고
어머니 배워주신 삶의 걸음새로
주저없이 추종없이 끝바로 갈
아, 나의 길은 오직 애국의 한길뿐

어머니시여 꽃다발을 받으시라

순옥이도 한송이
성문이도 한송이
뜻있는 어머니당장건기념일
손에손에 들고 온 꽃송이들은
어머니께 드리는 우리의 축하입니다

조국의 사랑은 우리의 자양분
조국의 은혜는 따사른 해빛
그 자양분, 햇빛이 없었더라면
인정없는 싸늘한 자본주의동토대에서
우린 꽃이 아닌 차디찬 얼음덩이

향기론 꽃송이에 담았습니다
수재로 소문난 순옥이의 자랑을
소문난 우리 학교 축구주장 성문이
의젯하고 씩씩한 기백을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학급자랑, 학교자랑 다 담았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고
더욱 강렬하고 열렬한 어머니의 사랑
망이 있어 뿌리박고 꽃이 핀다면
어머니품은 그 비옥한 대지
봄날에 꽃들이 고운 잎새 펼친다면
어머니정은 그 따스한 봄빛

키우느라 고심 많고 마음도 많이 써온
어머니 기뻐하시라 엮은 꽃들입니다
어머니시여, 이 붉고붉은 꽃들은
세상에 없는 사랑으로 그대가 안아
키운
이역의 아들딸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 민족교육 화원을 펼쳐준
어머니시여 고마운 나의 조국이어
꽃으로 피워준 그 은혜 잊지를 않고
총성의 대, 애국의 대 이어가는 길에
언제나 아름다운 생의 자욱 남기려니

꽃게절도 한때라 피었다 질 때 있고
바람에 꺾이우고 시들 때도 있건만
우리의 웃음은 지지 않는 꽃
사나운 회오리 기승을 부려도
꺾이운적 시든적도 없는 우리 아입니다

이역의 아들딸들 삼가 드리웁니다
감사로 엮고 맹세로 엮은 축원의
꽃다발
기쁘게 받으시라 어머니조국이어
세월이 무궁토록 영원히
그대 봄날처럼 젊어계시라



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어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잘 살려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우리 민족의 아름답고 고상한 미풍양속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빛내이도록 일군들을 따스히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주체38(1949)년 4월 어느날이었다.

일군들과 함께 민족보위성(당시) 종합치료소에서 치료를 받고있던 한 일군의 병문안을 하시고 마당으로 나오시던 수령님께서서는 너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옷차림을 보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너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옷차림을 보니 볼기문이 확연합니다.》

그때 너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은 흰 저고리에 검정치마를 산뜻하게 받쳐입고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환히 웃으시며 곁에 서있던 한 일군에게 이렇게 물으시었다.

《어떻습니까? 너맹중앙위원회 위원장동무의 옷차림새가 보기 좋지 않습니까?》

《너맹중앙위원회 위원장동무에게는 조선치마저고리가 잘 어울립니다.》

《조선치마저고리가 참 좋습니다. 치마저고리를 입으면 몸매가 늘씬하게 보입니다.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좋습니다.》

《확실히 조선여성들에게는 치마저고리가 잘 어울립니다.》
뜻밖에 수령님으로부터 과분한 칭찬을 받게 된 너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너무나 황송하여 얼굴을 붉히며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러는 그를 한동안 대견히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우리자신들이 잘 살려야 합니다.》

그러시고 사람마다 기호에 따라 조선옷이나 양복을 입을 수 있다고, 머리단장도 나이와 취미, 머리생김새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하시며 일부 녀성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조선사람들의 기호와 취미에 맞

지 않는 그릇된 현상에 대해 지적하시었다.

《조선사람은 조선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살려 차림새도 행동도 조선사람의 맛이 나게 해야 합니다.》

사대주의에 들렸어 남의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우수한 민족문화와 풍속을 귀중히 여길줄 모르게 되고 혁명도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민족문화유산을 지키고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 일군들이 버려야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아 안으며 일군들은 저도 모르게 자신들의 옷차림새를 살피보았다.

옷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옹기 살리겠는가에 대하여 마음쓰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러며 일군들은 민족문화유산을 지키고 살려내기 위한 투쟁에서 모범이 되겠다고 결의다지었다.

본사기자

다양한 문화체육활동으로 흥성이는 동포사회

재일동포사회가 다양한 문화체육활동으로 흥성이고있다.

지난 9월 뜻깊은 공화국창건 75돐을 맞으며 일본 도쿄에서 대공연 《우리의 국기》가 성황리에 진행되어 재일동포들에게 존엄높은 공화국의 해외공민들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안겨주고 동포사촌들께 우리 노래, 우리 장단, 우리 춤으로 흥성이며 민족문화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공연에는 금강산가극단과 조선가무단을 비롯한 전문예술인들은 물론 동포들과 학생들이 다 참가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 지금은 2023년도 금강산가극단 순회공연 《바람이 되어》가 진행되고있는데 공연을 본 재일동포들과 일반시민들속에서는 《조국에 대한 사랑이 담겨진 공연이다.》, 《흥분한 공연에 감동하였다.》, 《재연에도 꼭 관람하고싶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중앙체육대회 2023》을 비롯한 체육대회들과 재일본조선인체육협회, 재일본조선문화예술가동맹,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등 총련의 여러 조직들과 단체들이 주최하는 다채로운 문화체육활동도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이러한 문화체육활동들은 재일동포들로 하여금 민족의 넋을 깊이 간직하고 어려울수록 서로 돕고 이끌며 화합과 망명에 넘쳐 생활할 때 동포사회가 단합되고 시련도 난관도 웃으며 뚫고나갈수 있다는 신심을 더 굳게 간직하게 하고있다.

지난 시기 재일동포들은 생활상적으로 하여 문화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못하고있었다.

주체81(1992)년 2월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총련 일군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재일동포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여 예술활동과 체육활동을 다양하게 벌릴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사실 문화체육활동은 노래와 춤, 체육을 통하여 재일동포들에게 민족의 넋을 심어주고 일본사회에 조선민족의 기개를 시위할 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광범한 동포군중을 총련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데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있었다.

그후 총련에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예술소조들과 체육소조들을 많이 조직하고 그 운영을 다양화, 정상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총련의 여러 조직과 단체들은 지방단위로 광범한 동포들이 참가하는 음악회와 공연, 운동회 등을 자주 조직하였다. 실례로 공화국

창건 45돐을 맞으며 아마미찌에서 진행된 동포들의 예술축전 《울려라 우리 자랑, 노래자랑》에 어린이로부터 노인인 이르는 200여명의 동포들이 참가하였으며 오사카에서는 1500명의 동포들이 참가하는 대합창공연이 진행되었다.

오늘 동포사회에서는 세대를 이어온 애국애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그들의 가슴마다에 민족의 넋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문화체육활동들이 적극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서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5차 전체대회에 보내주신 서한에서 재일본조선문화예술가동맹과 금강산가극단을 비롯한 선전문화당기관들과 예술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지방가무단들의 공연과 각종 문예소조활동을 활발히 벌려 동포사회가 우리 노래, 우리 장단, 우리 춤으로 흥성이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높이 받들고 총련에서는 여러가지 문화체육활동을 조직적으로 활발히 벌려 광범한 동포대중을 애국애족의 길로 인도해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재일동포들은 이야기한다. 《문화체육활동은 이역방방에 조국을 알고 조선사람임을 느끼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 재일동포들이 떠나없이 한데 어울려 마음을 주고받고 뜻을 합치니 정말 한 집안식구가 되는것 같습니다.》

다양한 문화체육활동으로 흥성이는 동포사회.

이것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어려움속에서도 더욱 강화되는 동포사회의 화목과 단합, 조국의 힘찬 전진속도에 발걸음을 맞추어 나아가는 재일동포들의 드높은 열의를 보았다.

황길일



따사로운 사랑속에 꿈과 희망을 활짝 꽃피워간다

— 평 양 학 생 소 년 공 전 을 찾 아 서 —

래어나면 애기공전 차라니든 소년공전 어델 가나 내 나라엔 공전도 많아요 야 참 좋아 정말 좋아 아이들을 왕으로 떠받드는 내 나라 제일 좋아요 ...
이 땅의 학생소년들 누구 나 즐겨 부르는 《제일 좋은 내 나라》의 노래구절에

승고한 후대사랑에 떠받들려

얼마전 우리는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활짝 꽃피우며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주인공들로 차라나고있는 학생소년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전하고싶어 평양학생소년공전을 찾았다.
우리와 만난 리진주과장은 《평양 학생 소년 공전은 절대위인들의 승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뜨겁게 어려있는 학생소년들의 행복의 요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건국의 숨결이 해방된 강산에 차넘치던 주체36(1947)년 10월 위대한 집일성주석님께서 애국적인 상공인들이 헌한 건국회사금으로 아동공전부터 먼저 지으실 구상을 펼치시었다고 한다.
옛날에는 왕이 궁전을 차지하였지만 해방된 우리 나라에서는 귀여운 후대들이 나라의 왕인것만큼 그들이 궁전을 차지하게 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승고한 뜻에 떠받들려 아동공전건설이 활기있게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도발한 침략전쟁으로

로고가 함축된 사랑의 결정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승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의하여 그대로 이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것처럼 어린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평양학생소년공전의 불빛만은 꺼질수 없다고 하시며 정부청사의 전기공급체와 하나로 연결시켜주시고 궁전장식등도 몇번이나 교체하도록 하여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평양 학생소년공전에서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한시도 멈추없이 울려 퍼지게 하시려 지난 10여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손공금이며 바얀을 비롯한 수많은 선물악기들을 보내주시었다. 또한 평양학생소년공전 소조원들이 올린 글자잡음들보다 보아주시고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경축 대공연을 비롯하여 공전의 소조원들이 출연한 공연들도 기쁨속에 보내주시었으며 평양학생소년공전을 조국의 미래에 대한 당의 사랑이 응축된 만점짜리 과외교양기지로 더욱 훌륭히 꾸려주시려 로고

와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시작은 있어도 끝을 모르는 절대위인들의 이러한 열화같은 후대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으며 우리는 한없이 활짝 펼쳐라, 꿈과 재능의 나라를
평양 학생소년공전에 깃든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소조실들과 활동실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동행한 일군의 말에 의하면 지난 60년간 이곳 학생소년공전에서는 수많은 학생소년들이 자기들의 재능과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며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자라났다고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보살핌속에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들어와서도 평양학생소년공전에서는 재능있는 과학자, 예술인, 체육선수후비들을 수 많이 키워냈다.
동행한 일군은 공전을 찾아오는 학생소년들이 날마다 늘어나고있다고 하면서 우리를 태권도소조실로 이끌었다. 이곳 소조원들은 예리한 재능의 싹을 찾아 키워주는 따듯한 사랑에 금메달로 보답할 소중

은 불수록 독특하고 민족적 흥취를 자아냈다.
이곳 소조실을 나선 우리가 복도계단을 따라 내려오는데 걸은 민족적인 색깔과 풍부한 표현력을 가지고있는 가야금의 탄력있는 통현소리가 귀맛 좋게 들려왔다.
그 소리를 따라 가야금소조실에 들어서니 송골송골 내뿜는 땀방울을 흘릴념도 하지 않고 가야금의 연주기법을 열심히 익혀나가는 소조원들의 모습이 안겨왔다.
세상에 돌도 없는 배움의 요람에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며 앞날의 과학자로, 예술인으로, 체육인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고있는 학생소년들의 밝고 명량한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우리 조국을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이들의 천국으로 더욱 빛내주며 나라와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역적으로 담보해

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눈앞에 어려와 가슴이 후드워올랐다.
우리가 걸치는 온갖 난관을 이겨내며 혁명을 하고있는 중요한 목적도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하시며 조국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한걸음의 그늘도 없이 밝고 명량한 평양 학생소년공전 소조원들의 모습을 사진기 렌즈에 담으며 우리는 확신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승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그대로 이시고 자라나는 세대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훌륭히 키워가시는 자애로운 아버이를 모시어 아이들의 행복의 노래소리는 세세년년 높이 울려 퍼지리라고.

본사기자 김진혁

대담
새 교육방법을 무관히 창조해나가겠다
초등 및 중등 교육을 중요하고 발전시키는데 선차적임을 높여야 한다는 김정은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공화국의 대성구역 6월9일 통북기술고급중학교에서 가치있는 교수방법들을 창조하여 교육발전전에 적극 이바지 하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공훈교원인 최영순 대성구역 6월9일 통북기술고급중학교 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최근년간 학교에서 현대교육과학과 교육기술이 도입된 다학종합교육방법을 탐구도입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그에 대해 듣고싶다.
최영순: 교육내용과 방법은 인재 양성의 길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학생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체득하고 지적능력과 응용능력, 자립성을 높일수 있도록 교육과정안을 개선안정하며 실험실습의 비중을 높이고 교육사업은 학생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는 데로 확고히 지향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우리 학교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학생들에게 현실에서 부닥치게 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탐구 및 실천활동을 능동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있는 종합적인 과학적소양을 키워주는 데 기본을 두고 교육방법을 새롭게 혁신



평양 학생소년공전 어린이들이 애국적 열정을 나타내며 애국노래를 부르며 노래하고 있다.

과 시련속에서 보군 하던 자기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배움의 꽃대문에 들어섰다. 앞으로 꼭 공부를 잘하여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 기쁨드리겠다고...
학생은 행복에 겨워 토론 하였고 그것을 듣는 교원들과 학부모들은 모두 웃었다. 하지만 그때 사람들은 다 알수 없었다. 그를 위해 마



평양 학생소년공전 어린이들이 애국노래를 부르며 노래하고 있다.



평양 학생소년공전 어린이들이 애국노래를 부르며 노래하고 있다.



평양 학생소년공전 어린이들이 애국노래를 부르며 노래하고 있다.

영향을 주는 인자적인 무효 및 유효전력소비를 전기 신호에 물리를 결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국부방의 본질과 구성요소 등의 역할을 대하여 깊이있는 인식을 주고있다.
기자: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어 산 지식과 실천능력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것은 교육을 선진수준에 올려세우는데서 중요하다고 본다.
최영순: 우리 학교에서는 교실에서 교원이 가르치는 수업내용을 학생들이 그대로 전수받던 종전의 교수 방식에서 벗어나 가르치기와 배우기를 다같이 중시하는 교수방식을 교육실현에 구현하고있다.
과외시간에 학생들이 정보화 환경에서 다매체자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학습자원을 리용하여 자체로 새 지식을 습득하고 수업시간에는 교원의 지도밑에 토론과 논쟁, 실험을 통하여 학습과정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자립적으로 탐구, 응용하도록 하는 과정에 학생들의 자체학습능력과 사고력이 높아지고 토론을 통하여 학습내용을 발표하는 과정에 표현능력도 높아졌다.
이 나날 우리 학교는 2022년 10대정보화보급단위 칭호를 수여받았으며 새 교수방법창조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게 되었다.
교육사업에서 중점은 학생들모두를 창조형의 인재로 키워는데 있다.
새 교수방법을 창조하고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것도 여기에 귀착된다.
그러자면 아직도 많은 새 교수방법들을 창조해야 한다. 오늘 앞섰다고 하여 자만하고 방계를 놓쳐서 안된다. 앞으로는 우리는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사업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실지 실패있는 인재육성으로 지향되도록 교육사업을 설계하고 전근로자감으로 수확, 화상 가공과 망통신프로그램작성에 기술을, 만점속도에도

인간에 대한 가장 진실한 사랑과 헌신, 가장 깨끗한 인간윤리가 꽃피는 공화국에서는 후대들을 위하여 사랑과 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교육자들의 아름다운 소행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전해지고있다.
상처입은 소년을 위해
언제인가 개학할 피현군 봉화소학교의 운동장에서는 류다른 광경이 펼쳐졌다.
입학생들을 대표하여 토론을 하는 연막으로 담임교원의 등에 업혀 한 학생이 나왔다.
불편한 몸을 연막에 의지하며 서는 때 사람들은 비로소 그가 한다리에 의족을 한 신입생임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연막에 선 김강희 학생은 한점 그늘도 없이 밝게 웃었고 포랑포랑 울리는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맑았다.
뜻밖의 일로 한다리를 잃고 창문가에서 동네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부러움

어머니와 자식과도 같은 인연을 맺은 안유란교원은 그를 위한 스스로의 일과표, 새 과정안을 세우고 집행해 나갔다.
거기에는 퇴근후 강위학생의 숙제지도뿐만이 아니라 자연관찰과 식물표본제비를 위한 등산도 있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강위를 업고 학교로 출근했고 저녁이면 또 집에까지 업고
유란교원의 사랑과 정은 갈수록 더욱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평범한 일
몇해전 보통강구역의 한 분주소 점수실에 젊은 녀성이 들어섰다.
다시 발급된 딸의 출생증을 찾으려고 왔다는 그 녀성과 안전원사이에 오가는 이

활짝 웃고있으며 사는 활력있는 미래

후대들을 위해 바쳐가는 순결한 마음

은쁜 일군들과 앞으로 강위학생을 위해 바쳐지게 될 안유란교원의 희생적인 헌신에 대하여.
이 나라의 꽃대문에는 누구나 똑같이 들어서야 한다고, 강위도 고마운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할 이 나라의 꽃봉오리라고 하면서 자자한 강위 학생을 담당한 안유란교원, 그때부터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초월하여 강위학생과

가 학습지도도 해주고 밤먹는 모습까지 보고서야 퇴근 길에 올랐다.
이런 나날들에 신세상결함으로 하여 동무들과 휩쓸림을 지어하던 강위학생은 차츰 활달해졌고 어느덧 학교적으로 손꼽히는 최우등생이 되었다.
하지만 최우등의 성격으로 소학교과정을 마치고 초급중학교에서 공부하고있는 오달도 강위학생에 대한 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흑사회

- 괴 로 지 역 에서 -
피로지역에서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만연되는 해대와 멸시, 온갖 범죄의 희생물이 되고있다.
어린이유, 람치사건들과 학교폭력사건들도 그칠새 없이 일어나고있다.
피로지역의 한 조사기관이 초등,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데 의하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폭행에 시달리고있다 하면서 《더이상 배를 맞고 싶지 않다.》고 울분을 토로하고있었다 한다.
피로지역에서 범죄의 희생물로 되고있는 아이들의 60~70%이상이 10살 전후의 아이들이라고 한다.
피로지역 아이들의 이러한 비참한 운명은 구도의 인간중요와 개인주의,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쪽고 병

이 내주는 출생증을 받아 든 그는 출생증에 오른 자기의 이름에서 어머니의 의무를 다시금 자각하며 거기에서 한참이나 눈길을 떼지 못했다.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며 자기를 기꺼이 바쳐가는 처녀교원의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것이다.
본사기자 홍복식

한국에서 아동학대는 범죄가 아니다



한국에서 아동학대는 범죄가 아니다

저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덕과 정, 인간윤리가 깡그리 짓밟히고 말라버린 피로지역과 같은 암흑사회, 인간생지육에 미래가 있을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본사기자

전쟁부나비들의 자멸적 망동

피리적적페당이 반공화국군사적도 발책동에 매어달리며 정세를 격화시키고있다. 군부호전세력이 16일부터 그 무슨 《북의 다양한 위협에 대처한 군사대비태세유지》와 《합동작전수행능력제고》라는 간판밑에 《2023 호국훈련》을 개시하고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라는것을 벌여놓고서 회맹계 놀아대고있는것이 대표적 실례이다. 최강의 핵보유국인 공화국에 도전하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을 한사코 도발해보려는 전쟁부나비들의 자멸적망동이 아닐수 없다. 윤석열역적페당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왔을 후 《선제타격》과 《협에 의한 평화》를 부르짖으며 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에 광분하여왔다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올해에만도 역적페당은 그 무슨 《위싱턴선언》의 채택이 워니 하고 핵전쟁광기를 부리며 외세와의 군사적공조에 매달리는 한편 상전의 핵전략자산들을 련이어 끌어들이고 합동 군사연습강화와 북침선제타격용계에 따른 신형무기들의 개발과 도입에 혈안이 되어 날뛰어왔다. 저들의 《안보》를 미국에 얹혀놓고 근근히 언명해가는 주제에 상전의 《협》을 빌어 그 누구를 위협공갈해보려는 역적페당의 망동은 실로 가



얼마전에 피리지역에서 진행된 서울시 강서구청장보충선거가 보수페당의 대참패로 끝났다. 주민수도 많지 않은 한개구의 구청장보충선거가 향간의 판심을 모으며 된것은 다음에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서울지역민심을 가늠할수 있는 《전초전》이기때문이라고 한다. 그러한 선거에서 《국민의 힘》의 후보가 야당후보에게 압도적인 차이로 패하였던것이다. 오만과 독단, 전횡을 부리며 정치와 경제를 파국에 몰아넣고 반공화국대결과 친미친일사태행위를 일삼아온 윤석열역도와 《국민의 힘》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할수 있다. 알려진것처럼 윤석열역도는 집권해서부터 지금까지 정치적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야당대표에 대한 수사와 이전 《정부》의 허물들추기 등 정치보복에만 몰두하여왔다. 뿐만아니라 야당들과 로조단체를, 시민단체들과 주민들

보수 《정권》 붕괴의 신호탄

외세와 야합한 끊임없는 북침전쟁책동과 미전략자산의 상시주둔, 친년속적에게 제철의 문을 열어준것 등 친미친일사태대행위로 피리사회에 불안과 전쟁공포를 몰아넣은 역적페당이다.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된 윤석열역도의 악정과 부패행위, 사대매국책동을 쌍수를 들이 지지환영하면서 한껏 독재력의 나팔수, 수족노릇을 해온것이 바로 《국민의 힘》 패거리들이었다. 《이번 선거결과는 국정실책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다.》, 《윤석열(정권)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선고이다.》, 《강서구에서 탄핵선호란이 나왔다.》... 역적페당에 대한 민심의 쌍일대로 쌓인 분노가 이번엔 강서구에서 마침내 분화구를 터친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번져지자 《국민의 힘》 내부에서는 당지

8월 세계청소년 야영대회 폐막 공연에 강제로 내몰렸던 등도 문화예술계에 도파서에 담지 못하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어느한 명예교수가 쓴 시에 《친일매국노》, 《애비》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하여 교수의 사회교재망제뿐 아니라 그의 시를 공유한 사람들의 계정까지 모조리 차단한것, 인기있는 예술인들의 부정행위혐의를 걸어주고 협박하여 지난



노동치는 초콜바다, 칩몰하는 난파선

지난 2016년 피리지역에서는 각계층의 초콜투쟁이 세차게 벌어졌다. 그것은 박근혜도의 전대미문의 반역정치에 대한 민심의 쌓이고 쌓인 원한의 분출이었다. 력대 피리통치배들과 반인민적악정을 저지르지 않은적이 없었지만 박근혜도와 같이 대내적으로는 독재와 폭압, 부정부패, 전쟁대결을 일삼으며 민생과 경제는 물론 사회전체를 파국에 몰아넣고 정세를 전횡정변으로 몰아갔으며 대외적으로는 친미친일의 사대매국으로 민족의 존엄과 리의를 팔아먹은 만고역적, 천하악귀는 없었다. 인간다운 삶을 짓밟은 친



오늘도 우리는 반미반파쇼의 거세찬 함성

피리지역에서 려수군인폭동이 있을 때로부터 75년이 되었다. 1948년 10월에 있던 려수군인폭동은 피리군대의 군인들이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항거하여 손에 무기를 들고 싸운 반미반파쇼투쟁행위였다. 폭동은 미제와 리승만피리도당이 제주도인민항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피리군 제14연대에 진압명령을 내린것이 발단으로 되었다. 피리군 제14연대 3 000여명의 군인들은 10월 19일 출동명령을 거부하고 무장폭동에 결기하였다. 여기에 공감하여 피리군 제15, 4, 5연대의 군인들과 수만명의 인민들이 폭동에 합세하였다. 폭동군인들과 인민들은 《미군 나가라!》, 《단독(정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피리통치기관들을 깨부시고 려수, 순천 등 여러 지방을 해방하였다. 당황한 미제와 리승만도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비행기와 탱크, 장갑차까지 동원하여 려수와 순천을 불바다로 만들면서 폭동진압에 미쳐달려왔다. 살인귀들의 야수적인 만행으로 수많은 군인들과 인민들이 학살되고 수천명이 중장상을 입었다. 려수군인폭동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반미반파쇼투쟁사에 빛나는 한페이지를 기록하였다. 피리지역에서 려수군인폭동이 있을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의세가 없고 파쇼가 없는 땅에서 자주적이며 존엄있는 삶을 누리려는 인민들의 념원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만 피리지역은 려수군인폭동이 있을지 7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미국의 군사적강점과 파쇼에 놓여있다. 오늘 피리지역은 온 땅땅어리가 미제침략군의 군사기지들이 조밀하게 들어찬 거대한 미군기지, 북침전쟁기지로 화하였다. 또한 미국은 피리군의 통수권을 계속 틀어쥐고 합동군사연습강화 등 북침전쟁각본수행으로 내몰고있다. 미국은 저들의 탐욕적리익추구를 위해 피리지역의 경제와 인생도 희생시키고 지어 천년속적 일본과의 군사적결탁도 강화하도록 부추겨대고있다. 미국과 일본의 총실한 주권인 윤석열역도는 그 무슨

민심을 등진자들의 문명은 비참하다

력사에는 인민의 머리에 군림하여 매국매족과 파쇼통치를 일삼다가 비참한 종말을 고한자들의 운명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심복의 총에 맞아 비명횡사한 이전 《유신》독재자도 그러한자들중의 하나이다. 비록 박정희역도가 총계의 손에 죽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결코 피리통치층 내부의 모순과 알뜰, 권력싸움에 의한 우발적결과가 아니었다. 알려진것처럼 박정희역도는 미국의 조종밑에 무력으로 《정권》을 강탈하고 18년 집권기간에 사대매국과 반공화국대결, 파쇼폭압으로 악명을 떨친 극악한 독재자이다. 역도는 말끝마다 《미국을 위한 자유진영과의 군사적, 정치적유대를 긴밀히 하는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 《미국을 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떠벌이면서 미국의 게노릇을 충실히 하였고 우리 민족의 천년속적 일본의 과거죄악을 몇푼의 돈으로 덮어버리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보안법》을 보다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파쇼악법으로 개악한것도 부족하여 《특수범죄처벌특별법》, 《정당법》, 《정치활동정화법》, 《인신구속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수많은 악법들을 조작하여 피리지역을 파쇼독재의 란무장으로, 인권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는 민주, 인권의 폐지대로 만들었다. 《유신》독재통치기간 피리지역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식민지예속성이 더욱 심화되고 독재와 폭력이 란무하는 암흑사회, 사람 못살 생지옥으로 전변되었다. 암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기 마련이다. 《유신》독재자에 대한 각계층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는 10월민주항쟁으로 폭발하였다. 《유신헌법철폐!》, 《유신 독재타도!》의 함성이 피리지역 고도에서 울려퍼졌다. 피리지역 각계층의 대중적 투쟁은 《유신》독재집단내부의 불안과 공포, 내부모순을

본사기자 리광훈

편리성, 미학성, 견고성

《가을철전국신발전시회-2023》진행

지난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신발의 편리성, 미학성, 견고성》이라는 주제로 《가을철전국신발전시회-2023》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들만 들어도 믿음이 간다. 그래서 전시회장에 오자 바람으로 이 공장전시대부터 찾아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복산》 상표를 단 신발을 사러 왔는데 나에게는 차려질것까지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 《격정》부러울새웠다.

출품한 질 좋고 다양한 운동 신들은 척 보기에 눈길을 끌었다. 특히 색깔이 우아하고 앞으로 가면서 좁아지는 특이한 끈매기형식에 복합창을 댄 5형운동신은 청소년들의 인기를 모았다. 또한 앞코송이가 하얗고 구두로 3개의 흰 줄무늬가 울려버는 검은색바탕의 너자운동신은 대조되는 색깔과 새로운 형식의 조화가 이루어져 녀성들의 호감을 샀다.

발연소소의 전시대에도 둘러 보았다. 이곳 연구소의 한 일군은 《이런 전시회에 세계적으로 류행되고있는 각골형태의 남자구두를 처음으로 출품하였는데 참관자들이 많이 요구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세계적남구두두뿐 아니라 다양한 운동신, 텀발신 등을 출품하였다. 이 공장에서 만든 구두와 운동신은 질이 좋고 모양도 탐탁하며 신기에도 편리하여 누구나 선택 취고는 놓기 아쉬워하였다.



공화국의 의약품생산단위에서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효능높은 고려약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청류제약공장에서는 고려 약개발령역을 무단히 넓히기 위해 힘쓰고있다. 공장에서는 생산되는 모든 의약품들을 표준수치에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생산공정의 무균화, 무진화롤

가지 형태의 약품들이 개발 생산되고있으며 그중 8가지의 제품은 특허를 받았다고 한다. 약리효과가 뚜렷한 고려 약들을 많이 생산하고있는 평천고려약공장에서도 고려 약의 가치수들을 높여가고 있다.

젊음과 아름다움의 지향은 녀성들의 공통된 심리이다. 이로 하여 피부를 보호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기능성 화장품개발에 관심이 돌러지고있으며 특히 미백화장품에 대한 녀성들의 수요가 높아 가고있다.

미백효과가 뚜렷한 기능성 화장품 품. 미용작용이 뚜렷하다고 한다. 20일정도만 사용해도 피부에 광택이 보장되면서 뚜렷한 미백효과를 볼수 있으며 특히 계절적으로 피부가 잘 말수 있는 여름철에 자외선으로부터의 피부보호기능이 높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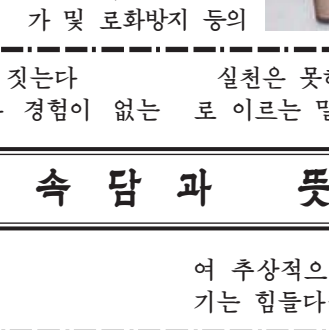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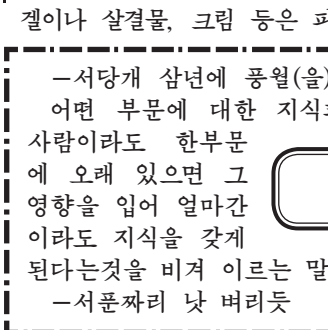
고려약생산에 힘을 넣는다

만년제약공장에서 조선 사람의 체질에 맞으면서도 효능높은 고려약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고 있다.

현재 공장에서는 선진적 성분분리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이에 따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있다.

공장에서는 금은화, 잔 잎썩과 같이 풍부한 약재들을 리용하여 상비약품과 대중약품, 건강식품을 비롯한 제품의 가치수를 10여종 더 늘리고 효능을 보다 높이는 방향에서 가공공정을 완비해나가고있다.

최근 공화국의 진보화장품 생산소에서 기능성화장품개발 생산의 세계적추세에 맞게 녀성들의 피부를 더욱 아름답게 해줄수 있는 기름개구리미백화장품을 새로 개발하여 내놓았다. 기름개구리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고급화장품원료중의 하나로 그것을 리용하여 만든 겔이나 쥬얼물, 크림 등은 피



기와 굽기 풍습 (4)

생각해볼수록 기와 굽는 일은 자신있었다. 저 장공인들이 하는 일을 나라고 왜 할수 없단 말인가. 사람이 마음먹어서 못할 일이 있는가.

한편 들이지 않고 기와를 마음대로 구워낼수 있단 말이요. 안해도 너무 좋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복근이를 꼭 껴안았다.

고 품이 많이 드는 일이다. 이것도 아니로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종단 말인가. 그날밤 흥달은 그 한생각으로 궁성거리다가 겨우 잠 들었다.

이 날이 더해만지게 될 것이요, 그와 함께 자식은 날마다 부모에 대한 효도의 마음이 울러자라니 집안에는 화목을, 나라에는 충정을 다할수 있게 된다.

다는 말에 흥달은 감격하여 고개를 쳐들었다. 신선은 구름을 타고 서서히 하늘로 올라가고있었다. 《신선님! 가지 마소이다!》 하고 소리치며 이부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난 흥달은 한동안 어리둥절하였다.

공화국의 품에서 삶을 빛내인 문학예술인들. 민족의 재사 리상벽. 1920년대 함경북도의 벽촌에서 막벌이근의 자식으로 태어난 리상벽은 집이 너무 가난하여 보통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였다.